

-자기소개 + 지원동기

: 안녕하세요 멋쟁이 사자처럼 10기 지원자 홍세린입니다. 고등학생때부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쪽 교사를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교사라는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는 넓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육봉사와 교생실습 등으로 서비스의 영향력을 경험한 이후, 저도 참신한 서비스로 세상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해서 새로운 분야인 식품자원경제학과 이중전공에 도전했고, 인플루언서에 도전하여 꾸준히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전공자로서 개발이라는 분야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다음 목표는 멋사에서 상상만 하던 것들을 실제로 만드는 경험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입니다.

-

-많은 동아리들 중 멋사를 선택한 이유

: 무엇보다 상상해왔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사실 다른 동아리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동아리들보다도 훨씬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존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와같이 비전공자이던 제 동기들이 저번 기수로 활동하면서 코딩을 배워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성격?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활발하고 밝은 편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해서 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기도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공감봇’ 이라고 불릴만큼 공감능력이 뛰어나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툼을 해본지 정말 오래되긴 했지만, 혹시라도 어떤 오해가 생겨 다툼이 생긴다면, 대화를 통해 풀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가 처한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등 먼저 공감의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의 상황을 설명하고 오해를 푸는 식으로 다툼을 해결합니다.

모든 사람은 제가 모르는 상황을 겪고 있고, 저는 모르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상황을 모르는 채 부정적인 감정을 갖지 않기 위해 늘 노력합니다.

-온라인 세션 진행> 사람들과 어떻게 친해질건지

: 제 성격이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편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즐기고 사람을 만나면서 오히려 에너지를 얻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션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더라도 먼저 말을 걸고, 궁금한 점들도 질문하면서 다른 분들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프로젝트가 많다> 학점이랑 어떻게 할건지

:미리미리 계획세워서 준비하면 아무리 바빠도 다 해낼 수 있는 것 같다. 특히 이번 학기엔 4과목 밖에 안들어서 그렇게 바빠질 것 같지 않고, 올해 내 목표 1순위가 코딩배우기 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학습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계획을 세울 것이다. 코딩학습을 위해서 2학기는 휴학도 계획하고 있다.

-멋사 활동이 바쁜데, 다른 활동들과 어떻게 병행해서 할 것인가?

; 모든 활동에 지원한 이상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계획 세워서 준비하면 아무리 바빠도 다 해낼 수 있는 것 같다. 특히 이번 학기엔 4과목밖에 안들어서 그렇게 바빠질 것 같지 않고, 올해 내 목표 1순위가 코딩배우기 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학습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계획을 세울 것이다. 코딩학습을 위해서 2학기는 휴학도 계획하고 있다. 올해를 멋사를 위한 한해로 보내고 싶습니다.

-고학번인데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지?

: 이번 년도 목표가 코딩배우기라 모든 시간과 노력을 멋사에 쓸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번엔 4과목만 듣기도 하고 다른 활동들은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올해를 멋사를 위한 한해로 보내고 싶습니다.

-수업을 하나 더 듣는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괜찮을지

: 모든 활동에 지원한 이상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힘들더라도 끝까지 해낼 것입니다. 이번 년도 목표가 코딩배우기라 4과목이기도 하고 다른 활동들을 아직 생각해본게 없어서 멋사를 위한 한해로 보내고 싶다.

-멋쟁이 사자처럼이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모든 활동이 그렇듯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전공자로서 개발을 배우는게 당연히 힘들고 복잡한 과정일거라는 마음의 준비는 충분히 되어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랜시간 지원을 준비한 만큼 최대한 팀원과 선배분들을 믿고 힘들면 도움을 받으면서 끝까지 활동을 마치고 싶습니다. 일단 저번 기수에 동기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멋쟁이 사자처럼이 실망스러운 동아리는 아니라는 것을 저도 같이 느꼈습니다. 친구들이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멋쟁이 사자의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멋사에서 하게 되는 프로젝트로 창업계획이 있는지

: 새로운 도전에는 늘 마음이 열려있습니다. 현명한 팀원들과 좋은 아이디어만 준비되어있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도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그 아이디어로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다면 창업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멋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개발 뿐 아니라 창업에 대해서도 배워보고 싶습니다.

-내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당연히 제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이번에 제 아이디어가 채택이 안되어서 다른 분의 아이디어로 진행이 되더라도, 그 과정들이 나중에 제 아이디어를 구현해낼 때 더 발전시킬 밑거름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서비스를 기획하더라도 제 아이디어를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모든 상황에 대해 마음을 열어두려 합니다.

-만약 내가 기획한 웹서비스가 가로막힌다면

: :팀원들과 의논해보고 의논한 결과 그들도 모두 관둬야 한다고 생각하면 무리하게 밀어붙이진 않겠다. 기회는 계속 있을 것이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을거고 다른 서비스를 개발할때 제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다른 방향으로 응용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집착하진 않으려 합니다. 그렇게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좀 더 발전하게 된다면 제 아이디어를 언젠가는 구현해낼 시간이 올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신이 기획한 아이디어를 관둬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것인지?

: 팀원들과 의논해보고 의논한 결과 그들도 모두 관둬야 한다고 생각하면 무리하게 밀어붙이진 않겠다. 기회는 계속 있을 것이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을거고 다른 서비스를 개발할때 제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다른 방향으로 응용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집착하진 않으려 합니다. 그렇게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좀 더 발전하게 된다면 제 아이디어를 언젠가는 구현해낼 시간이 올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멋사에서 활동하게 되면 이거 하나는 얻어가고 싶다:

비전공자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싶습니다. 고등학생때부터 경제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겁쟁이처럼 피하기보단 정복하고 싶다는 생각이들어 식품자원경제학과에 도전했고 지난 학기에는 유리벽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식자경에 도전한것보다도, 그리고 인플루언서에 도전한 것 보다도 멋사는 저에게 훨씬 더 큰 도전인 것 같습니다. 아예 다뤄보지 못한 분야를 선택한다는 것이 인생에 있어 큰 도전이기 때문에, 이전에 그러했던 것 처럼 끈기와 열의를 갖고 멋사 활동을 잘 마쳐서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싶습니다.

-장단점

장점: 계획을 잘 세우고 그것을 잘 실행에 옮긴다. 고등학생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플래너를 쓰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다 하지 않으면 자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엔 제가 세운 계획과 이행 정도를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바쁠 때도 스케줄을 잘 관리해서 모든 일을 다 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부족했던 점을 그날그날 성찰하고 보완한다는 것이 제 장점입니다.

단점: 긴장을 잘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시험기간엔 시험을 마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밥도 잘 못먹을 때가 있을 정도로 긴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격은 오히려 저에게 닥친 일을 꼼꼼하게 대비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걱정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해야할 일들을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서 대비를 합니다.

-프로젝트 하다가 팀원이 갑자기 못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제가 팀장이라면, 그 팀원을 동떨어지게 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 것입니다. 교육봉사 경험을 돌아보면, 그 학생들이 주로 교육 취약계층이라 학습 진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럴 때 그 학생들이 조금 느리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제 개인시간 투자하면서까지 멘토링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들도 제 노력을 보고 열심히 따라왔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혹시 팀원이 잘 못따라오더라도, 제가 옆에서 최대한 도와주고 이끌어주면서 팀원의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협업할 때 추구하는 가치- 서로를 응원하고 신뢰하는 것:

: 서로를 응원하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원에 대한 믿음이 기반이 되어야 어떤 일이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갈등이 찾아질 것이고, 그러면 프로젝트는 실패하게 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갈등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 들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전달한 이후, 팀원들과 논의의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놓친 부분도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의견이 가장 합리적일지 결정해나갈 것입니다.

-코딩할때 추구하는 가치?

: 코딩이 혼자하는게 아니라 팀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쉬우려면 코딩이 깔끔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코딩은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제일 꾸준히 했던 일

: 교육봉사입니다. 수능이 끝난 겨울방학부터 매 방학마다 교육봉사를 해왔습니다. 취약계층이 겪는 학습부진과 학업 격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동아리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스스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기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교육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과 팀원 중 선택

: 팀장에게 뛰어난 개발능력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팀장을 선택- 추진력이 강한 편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다른사람들한테 전달하는 편이다. 복잡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는 일에 자신이 있고 분위기를 밝게 이끌어 나갈 자신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팀원으로서 열심히 개발 배우겠다.

-멋쟁이 사자처럼을 통해 여름방학 때까지 꼭 이루고 싶은 것: 해커톤에 참여해서 실제로 서비스를 개발해내는 과정에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아이디어를 실현한다는 말이 정말 가슴을 뛰게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새로운 서비스가 이 세상에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잘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프로그래밍에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팀장 입장에서 팀원이 잘 못따라올 경우

: 제가 팀장이라면, 그 팀원을 동떨어지게 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 것입니다. 교육봉사 경험을 돌아보면, 그 학생들이 주로 교육 취약계층이라 학습 진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저는 이럴 때 그 학생들이 조금 느리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제 개인시간 투자하면서까지 멘토링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들도 제 노력을 보고 열심히 따라왔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혹시 팀원이 잘 못따라오더라도, 제가 옆에서 최대한 도와주고 이끌어주면서 팀원의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지를 담아 다짐

: 대학교 입시만큼이나 전전공공하며 지원서를 썼습니다.

-웹 프로그래밍 동아리 선택한 이유:

개발 과정에서 결과물 바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람을 크게 느낌, 사용자 범위가 상당히 넓다 교육과는 다르게..

-지원서에 만들고 싶다고 적은 서비스와 기존 서비스의 차별점

: 경험 기반의 봉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서비스와 다릅니다.

-

-서비스를 통해서 취약계층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

- 1) 취약계층 학업부진을 돕기 위해선 개별화 학습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학생 개개인이 개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lms 플랫폼을 개설해서 담당 교수자와 연결을 하도록, 그래서 개인의 부족한 면을 보완하고,질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2) 취약계층 위한 정보화 교육서비스 - 내가 개발자가 되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도 정보화 지식이 부족하고 인프라 부족한 취약계층은 그걸 활용하지도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 기반으로 정보화 교육을 해야돼. 정보화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더이상 불가능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 누구든 꿈꾸고 상상한 것을 현실에서 펼칠 수 있도록을 위해서 내가 먼저 배울거야.

금쪽이닷컴이 수익을 벌긴 힘들 것 같은데,,

: 금쪽이닷컴은 당장의 목표는 아니고 제 인생에 있어서의 버킷리스트 입니다. 모든 서비스가 상업적인 서비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멋사에서 개발에 대해 배운 후 개발자가 될지, 창업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떤 분야로 나가든 꼭 성공해서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위치에 오른다면 그때 도전하고 싶습니다. 혹은 나중에 정부의 부서와 연계하여 금쪽이닷컴을 1365자원봉사포털이 위치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조사를 하다보니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단체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갖추기 전까진 사회적으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하고 참신한 서비스를 개발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인스타 콘텐츠 기획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 먼저 참신한 컨셉을 생각해내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도라에몽이라는 저만의 부캐를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성공한 다른 인플루언서의 계정을 벤치마킹하고 공부했습니다. 팔로워 1만이 넘는 인플루언서들을 참고하며 어떤 식으로 포스팅을 하는지, 어떻게 팔로워를 유입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정 팔로워 수에 진입하면 팔로워 이벤트를 진행하여 제 계정을 홍보했습니다. 또 이미지가 주는 느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미지 보정에 힘썼습니다. 음식이 더 맛있게 보일 수 있도록 사진 보정 어플을 활용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먹은 것 아무거나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람들이 관심있어 할만한 음식이 어떤 것일까 늘 고민하여 포스팅 합니다.

-또 생각해왔던 서비스 있냐?

: 수강신청 알리미를 통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강신청 알리미에서 영감을 얻어서 저도 고려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한 서비스는 '졸업요건 알리미' 입니다. 졸업요건을 확인할 때마다 포털에 들어가고, 업데이트가 느리게 되는 졸업사정표때문에 매일 학점을 계산하고 복잡하게 졸업요건을 확인했습니다. 각자의 전공별로 전공요건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학점 계산기나 자신이 채운 요건들을 체크할 수 있게 하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카훗(Kahoot)’과 ‘퀴즈렛(Quizlet)’ 이 뭐야?

: 학습용 게임 서비스 입니다. 교사가 먼저 문제를 만들어서 카훗, 퀴즈렛에 등록해 놓은 후, 학생들이 핀 코드를 이용하여 게임방에 들어오면, 문제가 하나씩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답을 누르고, 가장 빠르게 정답을 고른 학생이 점수를 얻게 되는

게임입니다.

사회인으로서 금전적 요소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생 때 상업적 압박에서 벗어나 전반적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동들의 긍정적 정서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 정기적인 비대면 진료, 1:1 상담자 매칭 서비스